



## 이화여자고등학교 대뉴욕지구 동창회



발행인 : 전명혜

편집인 : 한영국, 서수경, 노신숙

# 초 대 합 니다

창립 44주년 기념 음악회 \* 만찬

### 2018년 연례만찬은

음악을 애호하는 우리 이화 동문들을 위하여  
클래식 음악회를 곁들여 품격을 더하였습니다.

부디 온가족 함께 오셔서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2018년 3월17일(토) 오후 5:30

장소: 대원 PALISADIUM

700 Palisadium Dr. Cliffside Park, NJ 07010

회비: \$130 (per person) \$250 (per couple)  
\$110 (each additional guest)

연락처: 남광희 301.753.0369 서수경 201.647.4099

RSVP: 3월 7일까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프로그램

1부:Cocktail  
5:30-6:15 pm  
River View Room

2부:Concert  
6:30-7:30 pm  
Grand Ballroom

3부:Banquet  
7:30-9:30 pm  
Skyline Ballroom



2018년 2월24일 뉴욕체험 프로그램과 만찬 준비를 위한 기대표 모임에서

## 회장 인사

대뉴욕지구 동창회장 전명혜(69)

유난히 추운 겨울 잘 지내시고 계시지요? 고국에서는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폐막했습니다. 감자만 생산되던 강원도 평창에서 세계적인 행사인 올림픽이 열린 것은 기적과도 같지만, 그동안 우리 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 온 결실이라고 봅니다.

우리 이화여고 대뉴욕지구 동창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동창회를 맡아 일하면서 때로는 개인 생활도 양보해야 할 때가 있어 동창회장 일이 쉬운 일이 아님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선배 회장님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나를 알 수 있었지요. 어느 회장님은 뉴스레터를 시작하고 어느 회장님은 기대표 모임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단단해지고 동창들의 소식을 가까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요. 또 다른 회장님은 재학생 해외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해당 학생들에게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희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또한 오스트레일리아의 동창회 발족을 주도하신 회장님도 계십니다. 이처럼 소규모로 시작된 동창회가 여러 회장님들을 거치면서 점점 알차게 발전해 나갔습니다.

국적이 바뀔 수는 있어도 모교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3월 17일에는 연례만찬 음악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문들 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초대해 따뜻한 마음들이 오가는 가족 행사 자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후배들은 선배들을 본받고 존경하며,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멋스런 이화의 독특한 분위기를 물려주어 우리 이화동창회가 70기, 80기로 계속 이어져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부디 가족들도 함께 오셔서 우리 이화의 자손들이 연주하는 훌륭한 음악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두 분의 아티스트 Jackline Choi(첼로), Sandy Cameron(바이올린)께 감사를 드립니다.

## 정동에서 온 아침인사

입학홍보부장 이명학

안녕하세요? 이화여고 입학홍보부장 이명학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희망찬 2018년을 맞아 대뉴욕지구동창회의 이화여고 동창님들께 큰절로 인사드립니다. 돌아보면 대뉴욕지구동창회 주최로 시작된 이화여고 학생들을 위한 뉴욕체험활동 프로그램이 동창님들의 봄 햇살보다도 더 따뜻한 사랑과 지원을 밟거름으로 해마다 성장을 거듭해 어느 새 커다란 대나무 숲을 이루어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처음 뉴욕체험 활동에 참가할 학생들을 선발하던 해가 떠오릅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내 걸었음에도 신청을 마감하고 보니 제 책상에 수북하게 쌓여 있던 지원서들을 정리하며 학생들의 크나큰 관심에 깜짝 놀라기도 하였고, 한편으로는 이 많은 지원자들 중에 어떤 학생을 뽑아야 할까 당황해 하던 제 모습이 기억납니다. 하지만 더 놀랐던 순간은 지원서와 함께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적혀 있던 때로는 절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시울이 아른거릴 정도의 가슴 아픈 사연들을 가슴 속에 숨기고 있던 학생들의 정성어린 글들을 읽어 내려가면서였습니다. 그런 각자의 애틋한 환경과 학업의 스트레스 속에 가려져 있던 학생들의 신선하고도 가끔은 놀라울 정도로 기발한 꿈과 희망이 적힌 글들을 읽어내려가면서 학생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뉴욕체험 활동이라는 이런 기회가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는 정말로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더 놀라운 것은 뉴욕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이화여고로 돌아온 학생들의 정말이지 깜짝 놀랄 만한 크나큰 변화였습니다. 출국 전까지 제가 보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너무나 크게 홀쩍 성장해 있는 모습으로 2학년 신학기를 맞이하는 프로그램 참가 학생들을 지켜보면서 청소년기에 주어지는 기대하지 못했던 이런 특별한 기회가 우리 학생들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뜻깊고 의미있는 훌륭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키워주시고 발전시켜주시는 대뉴욕지구동창회 동창님들의 이화여고 학생들을 향한 사랑과 애정, 그리고 크나큰 관심과 지원을 새삼스럽게 느끼며 이화여고 전체 교사를 대신하여 깊게나마 저의 글로써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동기회를 소개합니다



69 동기 신년 축하 모임



63 동기 월례 모임

### 양승효(71)

저희 71기는 매달 첫째 화요일 주로 뉴저지에서 모이고 가끔 뉴욕으로 원정을 나갑니다. 뉴저지, 뉴욕에서 오는 친구가 대부분이지만 필라쪽에서도 오고 가끔 보스톤 친구도 합류합니다. 물론 한국서 반가운 친구가 오면 번개팅도 하지요. 오전에 모여 독서모임과 기도로 영의 양식을 나누고 점심 식사 후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집니다.



가끔 저녁까지 이어질 때도 있지요. 지금 나누는 교재는 헨리 나우엔의 '영성수업'인데 각자 읽고 와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주님 뜻에 합당한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 나름 노력을 한답니다.

### 24대 임원진

회장: 전명혜(69) 합창부: 손종임(63)  
부회장: 조성은(68) 신앙교제부: 김 윤(69)  
총무: 서수경(72) 문화예술부: 한영국(75)  
회계: 박정서(73)  
서기: 노신숙(69), 남광희(69)

작년에는 저희 동기인 김경희 교수의 인도로 로마서를 공부했고 C.S.Lewis의 '순전한 기독교' Oswald Chambers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등 다양한 책들로 삶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후에는 맛있는 식사와 수다로 기쁨과 어려움도 같이 나누고, 가끔 쇼핑도 가고 하이킹도 가고 아주 가끔은 여행도 가지요. 마음을 터놓고 흉허물없이 아무 얘기나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 저희들은 정말 복 받은 거지요.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감사한 친구들입니다. 그들이 누구냐하면 김경희, 김명신, 김선주, 김성희, 김양신, 양보영, 양승효, 어영미, 이바랜수, 이은미, 이영숙, 이재은, 옥성숙, 유경호, 최황숙, 최남숙, 최혜연, 홍경애입니다.

자유, 사랑, 평화의 정신과 크리스천 교육을 받은 이화인답게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기를 꿈꾸는 71기입니다.

앞치마를  
입은  
귀여운  
76기



## 사진으로 보는 동문소식



심치선 교장선생님을 기리며

심치선(48) 전 교장선생님(제11대)이  
지난 2017년 연말에 소천하셨습니다.  
이렇게 생신을 축하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 합창부

2018년 10월 첫주말에  
보스톤 북미주동창회에서  
합창제가 열립니다.  
지금 합창단에 조인하시기 바랍니다.

손종임 : 203-610-2246  
jilee@yahoo.com  
이화인: 201-838-8436  
whainkang@gmail.com



### 신앙교제부

한국으로 돌아가는 김현애(72)동문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에서도 그 웃음을 잃지 말고 행복하게  
자랄-- 사세요!!!

한명숙(46) 전 회장님 생신에 함께 모여 축  
하를 드렸습니다.  
연세는 여쭈어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내내 건강하세요.



박문자(59, 박원선) 동문의 제2회 시화 전이 지난 5월 후러싱 타운홀에서 열렸습니다. 현운이라는 호로 활동하고 있는 동문은 글씨와 그림을 넘나들며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귀자(61) 조남천 부부  
금혼식 기념 전시회가  
지난 12월 열렸습니다.  
이귀자 동문의 한국화,  
그리고 조남천 이화 사위님의 사  
진 작품을 보며 모두들 귀감이  
되는 삶의 자세에 머리를 숙였습  
니다.

지난 12월과 1월에 걸쳐 리버사이드 갤러리  
에서 열린 최분자(70)동문 전시회 'Chorus'  
에 임원진이 함께했습니다. 빛이 가득한 그림  
을 만찬 프로그램 표지로도 기꺼이 내어주셨  
습니다.



황성혜(74)동문 개인전 '4각 반복  
(Four-sided Iteration)'이 2월8일부터  
25일까지 뉴욕Piermont에서 열렸습니다.  
'4각 반복' 앞에 선 '이화 4인'입니다.

젖은 목소리

허금행(68)

언제였나 첫눈 내리던 오후  
털실 가게에서 회색 텔실과 뜨갯바늘을 샀다네  
그의 목도리를 뜨던 12월은 아름다웠지  
세월이 지나도 겨울이면 아이들 스웨터를 뜨고  
벙어리 장갑도 만들었다네  
어느날 강아지가 텔실뭉치를 엉클어버리고  
나는 뜨개질을 멈추었지

이 겨울, 매서운 바람이 불고 첫눈이 내려  
뒷산 숲이 혼자서 눈물겨워 보이네…  
눈내리는 거리를 내려가 텔실 가게 앞을 서성이는 것은  
거기 남겨진 따스한 기억을 기웃거리며  
절름발이로 걸어온 시간들을 추스리고 싶어서였네  
회색 텔실을 사들고 나오면서  
이제는 나를 위한 텔목도리 하나 짜야겠다고,  
차가운 얼굴 위로 흘어지는 눈발처럼 흔들리는  
젖은 목소리…

겨울의 회색빛 저녁이 내리네



내 이름과 나

배숙나(69)

지금까지 나는 내 이름과 같은 이름을 본 적이 없다. 성도 희성인데다 맑을 숙 뒤에 붙은 '나'자가 흔치 않아서이다. 남에게 이름을 말할 때는 꼭 한 자 씩 띠어서 발음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승나'도 되고 '순나'도 된다. 이런 불편한 이름이 싫어서 아버지를 원망했다. 왜 하필이면 '나'자를 붙였냐고. 한자로 쓰면 특히 흔치 않은 글자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글자가 아니라 '어찌 나'라는 어조사이다.

싱가폴에 살 때 잠깐 중국어를 배운 적이 있는데 이 글자는 의문사나 감탄사에 자주 붙여서 쓰이는 글자였다. 아버지에게 왜 이렇게 미운 이름을 지어 주셨냐고 따질 때면 별 말씀 없이 웃기만 하셨다. 나는 이름 뿐 아니라 내가 가진 성격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어릴 때는 숫기가 없어 수업 중에 발표는 커녕 책읽기만 시켜도 얼굴이 달아 오르고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생활 기록부엔 항상 '발표력이 부족하다'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씩씩하고 사교성이 좋은 아이들이 참 부러웠다. 학년이 바뀔 때마다 새로 만난 아이들 앞에서 새로운 나를 만들기로 결심하곤 했다. 그러나 한 시간도 못되어 금방 내 마음에 안 드는 이전의 물렁물렁한 내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아버지가 50대 젊은 나이에 간경화로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해 주신 말씀이 있다. 내 이름은 아버지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쓰신 소설 제목이었던다. 신춘문예에 응모했다가 낙방한 소설이었다 한다. 나는 왜 실패작의 제목을 딸에게 주었냐고 웃었다.

마음 속에 수없이 실패하는 혁신을 꿈꾸며 그래도 무사히 학교도 마치고 결혼도 하고 아들 딸 키우고 이제는 손주도 셋이나 가진 할머니가 되었다. 이제 반올림하면 70이 되는 나이에, 아버지보다 훨씬 늙은 나이가 되어 나를 돌아본다. 아버지는 그가 이루지 못한 꿈을 딸에게서 이루고 싶었을까? 그냥 딸이 맑은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을까? 40이 넘으면 그 사람의 얼굴이 인생을 말해 준다고들 한다.

마음에 안 드는 이름도, 성격도 바꾸지 못했지만 "인상이 좋으세요"라는 말을 자주 듣는 것으로 험하게 살지는 않았다고 작은 위안이라도 해본다.

## 재학생 뉴욕 체험 프로그램

우리들의 후배 황민(2020년 졸업 예정)과 이세진(2020년 졸업 예정) 학생이 뉴욕동창회 장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뉴욕을 다녀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 곳을 견학하고 알찬 시간을 가졌습니다.

버겐 아카데미에서 교장 Mr. Davis 와 해외 학생 담당교사 Mr. Tronicke, 학생 멘토 April과 Esther, 그리고 교사 신미영(75)동문과 함께.



◀기대표 모임 후에는 회의에 여념이 없는 임원들을 대신해 김용희(55)동문이 학생들과 쇼핑을 하고 선물을 안겨 주셨습니다.

▶북미주총동창회장 이경해(69)동문과 함께 보스톤 박기춘(58) 동문 병문안을 하였습니다.



## 축하합니다



문윤희(74) 동문이 뿌리교육재단과 뉴욕중앙일보가 제정한 JNC 뿌리교육상을 수상했다. 문동문은 뉴저지 팰리세이드 한국학교 교장으로서 2세들의 교육에 헌신한 공로로 이 상을 받게 된 것이다. JNC 뿌리교육상은 청소년들에게 한국어와 문화 등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뿌리교육의 중요성을 한인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JNC 파운데이션의 후원으로 제정된 상이다.

이화의 꿈을 든든하게 키워주시는 동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2018년 2월 24일 현재)

**후원금 쾌척하신 동문들**

이청미(60), 김유순(64), 서재숙(64), 지성희(68), 남광희(69), 양~~연~~(71), 정성미(72),  
이영순(72), 허록(72), 유혜경(72), 권명순(72), 박옥숙(72), 안~~희~~(76), 수요모임,  
목요모임, 홍연실(외부인사)

기별 후원금 \$300, 60, 61, 63, 64, 65, 69, 71, 72, 75, 68(\$500), 89(\$100)

회장단을 위한 특별후원금(69) \$1,000

**물품으로 후원하신 동문들**

김용희(55), 이군자(63), 허금행(68), 이은주(72), 조경희(72), 최선희(80), 최진희(83),  
김동연(84), 김은주(예고74)

**동창회비 납부하신 동문들**

유영옥(55), 김대실(56), 장대옥(57), 이청미(60), 이완실(63), 서재숙(64), 김근애(65),  
김미봉(65), 김연규(65), 김한숙(65), 손인경(65), 송경순(65), 이금화(65), 임익화(65),  
임옥자(65), 양경숙(65), 우인숙(65), 원건숙(65), 전금옥(65), 전경옥(65), 최상례(65),  
정원(65), 최정열(65), 어경아(66), 원인순(66), 이정애(66), 이안득(66), 유기자(66),  
김인숙(66), 이영순(66), 이정화(66), 김안자(66), 정진영(66), 이영희(66), 이채임(66),  
기민정(66), 윤종숙(66), 김원경(66), 구순이(66), 김복영(66), 진윤자(66), 심재경(66),  
이종례(66), 정화영(66), 박선희(66), 김광은(66), 이애리(66), 김춘영(66), 김선애(66),  
계미영(66), 박혜자(66), 손미(66), 최성남(66), 김희자(66), 박경원(66), 조성은(68),  
전명혜(69), 노신숙(69), 남광희(69), 김순화(72), 서수경(72), 이은주(72), 권명순(72),  
조경희(72), 박정서(73), 한영국(75), 전미송(75), 신미영(75), 최선희(80), 최진희(83),  
김동연(84), 유미선(84), 이미숙(85), 이선화(85), 최은선(85), 박영신(89)



**EWHA GIRL'S HIGH SCHOOL  
ALUMNAE ASSOCIATION OF  
GREATER NEW YORK**  
30 Forest Rd. Valley Stream, NY 11581



Kang (Lee), Wha In [74]

312 Ropes Rd

Englewood Cliffs, NJ 07632